

양녕대군[讓寧大君] 왕위에 오르지 못한 세자

1394년(태조 3) ~ 1462년(세조 8)



1 개요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이름은 제(禔)이고, 자는 후백(厚伯)이다. 아버지는 태종이고, 어머니는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이다. 부인은 광산(光山) 김씨 가문 김한로(金漢老)의 딸이다. 양녕대군은 태종의 큰아들로 1404년(태종 4)에 세자에 책봉되었지만, [관련사료](#) 약 14년 후인 1418년(태종 18)년에 폐위되었다. 대신 셋째 동생 충녕대군(忠寧大君)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가 바로 세종이다.

세종 즉위 이후 양녕대군은 국왕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는 자주 탄핵되었지만, 세종은 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폐위 이후 지방을 전전하던 양녕대군은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세종과도 자주 만났다. 한편, 세종이 세상을 떠난 후 양녕대군은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갔다. 이후 계유정난(癸酉靖難)에 깊이 개입하여 세조의 즉위를 도왔고 단종과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사사(賜死)에 개입하였다. 1462년(세조 8)에 69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강정(剛靖)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2 세자로서의 삶

양녕대군은 11세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된 이후 본격적인 국왕 준비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듬해부터 세자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관련사료](#) 이후 공부에 열중하지 못하면서 놀고 사냥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어 세자전의 환관들이 대신 매를 맞기도 했다. [관련사료](#) 식사 예절이 좋지 못해 부왕으로부터 혼나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사료](#)

물론 매번 부왕의 꾸중만 들었던 것은 아니다. 1407년(태종 7) 9월에 양녕대군은 백여 명의 사신단을 이끌고 명에 가서 반년이 넘는 사행 일정을 소화했는데, [관련사료](#) 출발 당시 세자는 14살에 불과했다. 태종은 사행을 마치고 돌아온 세자가 매우 대견스러웠다.

조선 건국 이후 대명관계가 안정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일이 걸렸다. 태조대의 국호 결정이나 태종 즉위 후의 고명(誥命, 황제에게 왕위를 승인받는 문서)과 인신(印信) 하사 등의 성과는 조선과 명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상황에서 양녕대군이 영락제(永樂帝)를 만나고 왔던 것은 양국 간 대외관계의 안정에 있어서 의미가 컸다. 또한 조선 건국 이후 세자가 명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도 정치적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태종도 자신이 왕자 시절에 명에 다녀온 일들을 회상하며, 성장한 세자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 만족스러워 했다.

[관련사료](#)

다만 그러한 부왕의 기대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세자가 사행을 떠나기 전 조정의 상황이 매우 복잡했다. 우선 몇몇 대신들이 세자와 명 황녀의 혼인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다. 그 계획은 공부(孔俯), 이현(李玄) 등이 제안했지만, 양녕대군의 외가인 민제(閔霽), 민무구(閔無咎) 일가를 비롯하여 하륜(河崧), 성석린(成石璘), 조영무(趙英茂) 등의 핵심 관료들도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던 차에 명 사신 황엄(黃儼)이 조선에 와서 혼인 관련 논의를 꺼내지 않자 태종은 세자를 김한로의 딸과 혼인시켰다. 결국 명 황실과의 혼인은 백지화되었다. 조정에서는 혼인을 논의한 배경에 대해 각종 논란이 양산되고 있었다.

세자의 사행을 기점으로 하여 민무구, 민무질(閔無疾) 등 외삼촌들의 불충(不忠)에 대한 탄핵도 이어지고 있었다. 민무구 등이 “세자 이외에 왕자 중에는 뛰어난 재주가 있는 자가 없어도 좋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세자를 따라 명에 다녀왔던 이지성(李之誠)의 발언까지 문제가 되었다. 사행 중에 이지성이 민무구 형제의 무죄를 언급한 사실을 세자가 태종에게 아뢴 것이 뒤늦게 밝혀졌던 것이다. 세자의 폭로는 결국 외삼촌들의 처벌에 영향을 끼쳤다. 몇 달 후 외할아버지 민제(閔霽)는 세상을 떠났고, 이후 민무구 형제도 죽임을 당했다.

명에서 돌아온 이후 세자의 일상을 보면 명 사신을 접대하고 강무(講武)를 수행하거나 제례를 대신 주관하는 등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부적절한 행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의 행실은 학문을 게을리 하고 사냥이나 내기 등을 일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마음대로

궁을 나가 연회를 베풀고 다른 사람의 첩을 강탈하는 등 세자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었다.

3 세자위에서 폐해지다

1416년(태종 16)에는 구종수(具宗秀), 이오방(李五方)이 멋대로 궁 안에 들어가 세자와 유희를 즐기고, 혹은 세자를 집으로 불러내어 여색을 바치던 일이 발각되었다. [관련사료](#) 이들은 곧 유배에 처해졌고, 세자는 앞으로 불효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관련사료](#)

하지만 세자는 얼마 가지 않아 공부를 소홀히 하고 궁 밖으로 나가 노는 일도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세자가 곽선(郭璇)의 첩 어리(於里)를 빼앗아 간통한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사료](#) 이 일로 처가였던 김한로의 집으로 쫓겨났는데, 어리가 아이까지 낳으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관련사료](#) 세자의 처가에서 여색을 들이고 아이를 낳게 도와주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김한로는 의금부에 하옥되었고, 곧이어 유배에 처해졌다.

세자와 결탁하거나 비호하던 일부 관원이 숙청되거나 유배되는 상황은 세자의 정치적 입지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세자와 어울렸던 구종수, 구종지(具宗之) 형제와 이오방 등이 참형을 당했고, 세자를 비호하던 김한로와 황희(黃喜)까지 유배되면서 세자의 위상은 매우 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양녕대군이 손수 쓴 글은 자신의 행실을 반성하기보다는 공격적인 어조로 태종을 탓하고 있었다. [관련사료](#) 부왕의 시녀는 모두 궁중에 들이면서 왜 자신의 첩은 금하는 것이냐는 항변이었고, 부왕의 대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으름장이었다. 양녕대군은 “백성의 집에 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궁중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관련사료](#)

마침내 양녕대군의 폐세자는 확실시되어 갔다. 조정에서는 후계를 두고 양녕의 적장자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왕위에 오를 만한 현명한 인물을 선택하는 택현(擇賢)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택현의 논리에 따라 충녕대군을 세자에 책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관련사료](#)

4 세종 즉위 이후의 양녕대군

세종이 즉위한 후 14년간 세자의 지위에 있었던 양녕대군은 강화(江華)로 옮겨갔다. 이후 양녕대군은 양근(楊根), 청주(淸州), 이천(利川)을 옮겨 다니며 거주하였다. 하지만 원래 세자이자 적장자였던 대군의 존재는 국왕의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상왕이 된 태종은 양녕대군의 죄를 장인 김한로 때문으로 국한하고 [관련사료](#) 부자의 정을 나타내면서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양녕대군과 관계를 맺는 세력의 존재를 항상 경계하였다.

양녕대군은 폐위 이후 “평민과 함께 살면서 사냥이나 즐기고 싶다”던 소원을 이루었지만, 각종 논란이 적지 않았다. 양녕대군을 초대하여 유흥을 즐겼던 관리들은 유배되었고, [관련사료](#) 사사로이 왕래하거나 아부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탄핵되기도 했다.

상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관료들은 “내가 죽은 뒤에도 서울에 왕래할 수 없다.” [관련사료](#) 는 태종의 유훈을 거론하며 양녕대군을 형제의 우애가 아닌 군신의 의리로서 엄격히 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관련사료](#)

반면, 세종은 양녕대군의 일이 논란이 될 때마다 풍문을 듣고 죄를 줄 수는 없다거나 골육지친이므로 차마 버릴 수가 없다는 등의 논리를 펴며 그를 보호하려고 했다. 아예 양녕대군과 관련된 일을 아뢰지 말라고 명하기도 했다. 세종은 양녕대군을 자주 서울로 불러들였고, [관련사료](#) 궁중 연회도 베풀어주었다. [관련사료](#) 신하들은 매번 불가함을 아뢰었지만, 세종과 양녕대군의 만남은 제례, 연회 등을 통해 계속되었다. 결국 세종은 양녕대군을 서울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후 문종대, 단종대를 거치면서 양녕대군은 종실의 어른으로서 대접 받았다. [관련사료](#)

5 계유정난과 양녕대군의 말년

1453년(단종 1) 세종의 둘째아들인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하는 계유정난이 일어났다. 세종의 유지를 받들어 단종을 보좌하던 김종서(金宗瑞), 황보인(皇甫仁) 등이 살해되었고, 세종의 셋째아들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등이 단종 복위를 꾀하였다가 제거되었고, 금성대군(錦城大君)도 역모죄로 죽었다. 결국에는 단종도 폐서인되어 죽음을 맞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녕대군은 자신의 조카인 안평대군의 사사를 적극 주장하였다. 계유정난 직후에는 안평대군의 역모가 극형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고, [관련사료](#) 1457년(세조 3)에는 ‘노산군(魯山君)을 끼고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던’ 세력을 죽여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관련사료](#) 단종의 장인인 송현수(宋瑄壽) 등이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단종도 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정인지(鄭麟趾)가 관료들의 구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양녕대군은 종친의 어른으로서 수양대군의 권력 쟁탈에 도움을 주었다.

그후 양녕대군은 편안한 삶을 이어갔다. 1459년(세조 5)에 양녕대군이 역모를 일으키려 한다는 승려 신순(信順)의 고변이 있기도 했지만, 세조는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1462년(세조 8)에 69세의 나이로 병사하였다. 그의 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상도동)에 있다.